

		<h1>보 도 자 료</h1>		
		배포 일시	2018. 10. 2.(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당 자	·과장 오행록, 팀장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주무관 김정희 ·☎ (044) 200-6181, 6182, 6184	
보 도 일 시		2018년 10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심에서 남극과 북극을 만나요

- 10. 5~11. 3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18 극지체험전시회' 열려 -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을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월 5일(금)부터 11월 30일(금)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설전시장에서 '2018 극지체험 전시회'를 개최한다.

극지체험전시회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올해에는 '가자! 자원의 보고 남극·북극에'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시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후원한다.

* 제1회(광주·청주 교육과학연구원), 제2회(서울어린이대공원), 제3회(부산국립해양박물관, 울산대공원), 제4회(여수엑스포해양공원), 제5회(부산국립해양박물관), 제6회(인천어린이과학관), 제7회(고천국립과학관)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래 전 지구의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극 빙하와 운석, 펭귄·바다표범·바닷새 등 극지 동물, 해조류·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동·식물의 표본들과 방한복 등 극지 용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극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 극지탐험 난과선을 실제로 탑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스노모빌*과 같은 장비들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비롯하여

북극곰·펭귄 모형 전시, 극지 사진전 등 도심 속에서 극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 눈이나 얼음 위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스키 등을 부착하여 만든 차량

전시회 기간 중 둘째, 넷째 일요일 10시 30분에는 남극에 위치한 '장보고 과학기지' 대원과 직접 화상 통화를 연결하여 국민들이 남극의 생활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질문해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벤트 구역에서는 수시로 '장보고기지 모형 조립대회', '극지동물 스티커 붙이기', '남극으로 보내는 편지쓰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도심에서 남극과 북극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극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 극지체험전시회'는 관람 기간(10. 5.~11. 30.)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2018 극지체험전시회 행사개요>

- 일시/장소: 10. 5.~11. 30. 09:30-17:30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설전시장
- 주제: 가자! 자원의 보고 남극·북극에
- 주최/주관/후원: 해양수산부 /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연구소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주요내용: 극지 표본·용품·모형 전시, 가상현실(VR) 및 극지장비 체험 등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